

大瓠 李(運鎬)先生の 生涯와 思想

金 時 晃*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4. 學問과 思想 |
| 2. 先生の 家系와 生涯 | 5. 맺는말 |
| 3. 文集 및 詩文 | |

1. 머리말

大瓠 李運鎬 선생은 朝鮮 末期의 가장 어렵고 混亂한 時期에, 生涯의 대부분을 보낸 수많은 선비들의 典型이 되는 분이다. 당시의 知識人인 선비들이 누구나 다 비슷하게 不遇한 생활을 하였듯이, 선생 또한 훌륭한 經綸과 역량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 중에서도 500 餘首의 詩를 비롯하여, 便紙 등 많은 글을 남겼는데, 이것은 선생의 一生과 抱負를 가늠하는데 좋은 資料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므로 우리 後生들이 參照해 볼 선생의 삶과 사상 및 教훈을 알아 보기 위해, 남긴 글을 대강 이나마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先生の 家系와 生涯

先生の 諱는 運鎬, 字는 相五, 號는 大瓠이며, 姓은 李氏로 本貫은 眞寶이다. 上祖는 諱 碩인데, 縣吏로 司馬에 及第하였으며, 密直使를 贈職 받았다. 密直使의 아들 諱 子修는 紅巾賊의 난을 討伐하는데 功이 있었으므로 典儀 寺事 벼슬에 올랐으며 松安君에 封했고, 나중에 豊山縣으로 옮겨 살았다.

松安君의 아들 諱 云侯는 軍器寺 副正으로 司僕寺正을 贈職 받았다. 그 아들 諱 禎은 府使로 贈戶曹判書 인데, 退溪先生에게 曾祖가 된다. 그 아들 諱 遇陽은 縣監이었으며, 여러 代를 지나 諱 擊¹⁾은 生員이고, 그 아들 諱 朝成은 副護軍으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로 號는 鵝湖인데, 선생에게 八代祖이다.

高祖의 諱는 尙璣로 成均生員이며, 號는 墨窩이고, 曾祖의 諱는 顯儒, 號 菊溪이다. 祖는 諱 晚晟으로 退溪先生 十一代孫인데, 吏曹參判을 贈職받은 彙復의 第三子로서, 出系하여 菊溪公의 嗣子가 되었다. 考諱는 中權이고, 妣는 固城 李氏 同中樞 帆溪 瓚의 딸로 淑德과 閨行이 있었다.

先生은 哲宗 3年 壬子年(1852)에 現在の 안동댐 水沒 地域인 安東郡 禮安面 美質里 九溪 마을에서 出生하였는데, 容貌가 빼어났고²⁾, 氣骨이長大하였으며, 器量이 넓고 컸었다. 그리고 天性이 聰明하여, 王考公을 되시는데 게으름이 없었고, 배움에 있어서는 煩雜하게 督勵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헤아리고 잘 살피 스스로 깨달았다. 王考公이 매우 기특해 하고 사랑하여 家門을 맡길 것을 기약하였으며, 外王考 帆溪翁도 그 기량을 중히 여겼다. 先生은 초년에 벌써 學問의 바탕을 쌓았는데, 진정한 학문에 대한 포보가 다음 詩에 잘 나타나 있다.

生爲男子降吾家	남자로서 우리 가문에 태어나
學到聖賢非直奢	성현을 배워 다만 사치롭지 않네
流光當爲衰年惜	세월은 빨리 흘러 남은 나날 아까우니
那得硬繩繫日華	어찌해야 가는 해를 매어 들수 있으리오

壬午年(1882)에 病患에 계신 王考公을 先生이 극진히 看護하고 있었는데, 王考公께서는 선생에게 집안 일을 맡기고, 또 言行을 삼갈 것을 警戒하면서, 곧 下世하였다³⁾. 선생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거듭 仰慕해 마지 않았고, 葬事 지낸 후에는 行狀을 지어 영원히 전해 지도록 하였다.

丁亥年(1887)에 外艱喪⁴⁾을 당하여는 朱子 家禮에 따라 葬事지냈고, 어머니를 섬기는데 있어서는 그 뜻의 奉養을 극진히 하였으며, 후에 先府君의 家狀을 撰述하였다.

庚子年(1900) 4월에 上京하여 從仕郎 章陵參奉에 除授되었으나, 나라의 形勢가 外憂 內訌⁵⁾으므로, 벼슬에 나아 갈 때가 아니라 하여, 故鄉으로 돌아왔다. 湖西 각 지방을 두루 돌아 보면서, 답답하고 鬱寂한 마음을 詩로 읊었다.

庚戌(1910) 社屋⁶⁾이후 문을 닫고 일을 사양하였으며, 後進 養成을 자신의 임

1) 擊 : 끝건.

2) 岐嶷 : 높게 뻗어난 뜻으로,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난. [詩經] '克岐克嶷' [晉書 簡文帝紀] '童幼而岐嶷 弱冠而著德'

3) 啓手足 : 죽는 것. [論語 泰白 8. 3] '曾子 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4) 外艱喪 : 아버지 喪

5) 外憂 內訌 : 밖으로는 外勢의 侵略이 있고, 안으로는 混亂스러운

6) 庚戌 社屋 : 庚戌 國恥

무로 삼아, 겨울과 여름철에 학문을 講論하여 젊은이들을 興起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甲寅年(1914)에는 거처하던 마을과 가까운 商山 朴谷에 초가집을 지어 大瓠亭이라는 扁額을 달고, 학문 연구하고 손님을 接待하는 곳으로 삼았다. 大瓠라고 한 것은 그 마을 이름인 朴谷과도 연관이 있으나, 또, 莊子의 五石瓠의 뜻을 취한 것으로, 너무 커서 세상에 쓰임이 없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⁷⁾

臨時政府 初代 國務領을 지낸 石洲 李相龍 先生은 선생의 內從姪인데, 氣象과 風趣가 일찍부터 서로 일치하였다. 1911년 1월에 石洲先生이 滿洲로 亡命할 때, 당시 선생은 이미 나이가 六旬의 老齡이어서 獨立運動의 前線에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石洲 先生에게 다음과 같은 詩를 지어 주기를

處世日多年已老 세상에 오래 처해 나이 이미 늙었는데
占身地僻夢還長 궁벽히 살아가니 꿈길만은 길어지네

라 하였다. '夢還長'은 윗구위 '年已老'와 대조되면서 선생의 憂國 慷慨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또 祖國의 상황을 恨歎하면서 石洲의 長途를 격려하고 祝願하는 아래의 詩도 지어 주었다.

風後短簷鳥失栖 바람 분뒤 처마에는 새가 집을 잃었고
雨餘新圃屐生痕 비온 뒤 채소밭에 나막신 흔적 생겼네

여기서 '風'은 日帝 勢力의 강점, '短簷'은 朝鮮, '鳥'는 朝鮮 民衆, '雨'는 亡命과 辛苦, '新圃'는 滿洲, '屐'는 獨立運動의 換喩이다. 石洲先生이 鴨綠江을 건넌 후에 일찍이 비를 무릅쓰고 그가 살던 古家 臨淸閣을 지나다가 所懷 있어 다음과 같이 읊었다.

淸閣主人鴨水西 淸閣 主人은 鴨水 서쪽에 있고
東軒今有石層梯 東軒에는 지금 돌계단만 이 있네
歷歷一身君海鵠 역력한 그대 一身 바다의 고니나
悠悠萬事我醯雞 만사에 悠悠한 나는 초파리로세⁸⁾
愁看渭水東流去 東流하는 渭水를 슬픔에 바라보니
爲報歸波好爾携 물결따라 돌아와 提携하여 보답하세

7) [莊子 逍遙遊] '今子有五石之瓠 何不慮以爲大樽 而浮乎江湖 而憂其瓠落無所容 則夫子猶有蓬之心也夫'(이제 그대가 다섯 섬들이의 박을 가지고 있다면, 어째서 그것을 큰 술통 모양의 배로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않고, 그것이 평평잡하여 아무 것도 담을 수 없다는 걱정만 하는 게요. 역시 선생은 앞뒤가 꼭 막히신 분이구로)

8) 醯雞 : 술 단지에 생기는 작은 벌레. 초파리. 蟻蠊.

石洲를 '海鶴'으로 자신을 '醯鷄'로 隱喩한데서 알 수 있듯이 선생은 滿洲로 망명하지 못한 자신을 慘愴하게 自嘲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日帝 治下에서 憂國한 知性人으로서 自己 認識이며 선생의 참다운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은 國內에서 다른 方便으로 同胞의 桎梏을 救濟하려는 경륜이 있었다. 그래서 神農 丹訣⁹⁾을 깊이 탐구하고 그 성과를 從弟 得鎬公을 시켜 널리 베풀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庚午年(1930) 正月 十九日에 享年 79歲로 考終하여 臥龍面 浙江洞 芒碭山 將幕嶺 乾座 언덕에 葬事하였다. 配는 恭人 義城 金氏 參議 禹銖의 女이며 墓는 合窆하였다.

3. 文集 및 詩文

선생의 遺文은 적지 않았는데, 兵亂을 겪으면서 많이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선생 在世時에 長子 西巖 源庸公이 蒐輯하여 親히 手寫한 若干 卷이 오래도록 상자 속에 간직되어 있었다. 여러 차례 刊行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또 더욱 안동댐의 건설로 옛 터가 水沒되기 때문에 집을 옮김으로써 더욱 遷延되었다.

그러다가 선생 考終後 70周年에 가까운 이 때, 曾孫인 仁熙 大熙 兄弟가 百方으로 遺文을 대폭 蒐集하고, 金日大 선생의 原稿 整理를 거쳐 비로소 登梓하게 된 것이다.

文集의 內容은 詩가 大瓠亭韻 外 500餘題 650餘首로 龍大한데, 退溪先生과 先賢들의 詩를 次韻한 大作들이 매우 많다. 그 중에는 大瓠雜詠 5首, 茆齋十景 10首, 大瓠九曲 9首, 山居次雲谷雜詠 12首, 次黃錦溪集勝亭十詠韻 10首, 大瓠書室 18首, 次先祖石江十詠爲曹上舍作 10首, 山中伏次先集山居四時各四吟 16首, 瓠亭伏次陶山十八絕 18首〈操敬齋 求友齋 臥雲軒 君子池 節友社 白雲隴 挹清塢 濯清臺 引賓巖 墻東巖 玉鳴潭 讀書巖 青僊¹⁰⁾淵 碁盤石 西翠帳 南翠帳 浙¹¹⁾江坪〉, 十五絕 15首〈山泉 庭草 溪柳 菜圃 砌¹²⁾花 釣磯 月艇¹³⁾ 漁村 烟林 雪徑 鷗渚 鶴汀 長郊 遠岵 古寺〉, 效李休叟先生十竹韻作八梅詩 8首, 次先祖題鄭子中畫屏八絕韻 8首, 裴翁次先集黃錦溪十畫韻求和 10首, 春日山亭次先祖溪堂十絕韻 10首, 次先祖

9) 丹訣 : 道家의 鉛丹術

10) 僊 : 崑崙崑崙, 仙人선.

11) 浙 : 물이름질, 쌀씻음질.

12) 砌 : 섬돌체, 문지방체.

13) 艇 : 작은배정.

詠挹清亭十一韻 11首, 등이다.

輓詞는 輓琴魯瞻 外 32篇이다. 그리고 書는 答西山金丈 外 76篇, 記는 大瓠亭記 外13篇, 上樑文이 2篇, 祭文이 12篇, 誄文이 3篇, 雜著가 2篇, 行狀이 3篇이다.

附錄으로는 永嘉 權秉燮 선생의 大瓠亭記 외 3篇과 선생의 行狀 墓碣銘이 있고, 後人들의 선생에 대한 輓詞가 完山 柳淵根 外16篇, 祭文 5篇 詩 80餘篇, 書 9篇 등이 있으며, 曾孫 仁熙의 跋文 및 世系圖가 있다.

4. 學問과 思想

金日大 선생은 선생의 行狀에서 '선생이 大賢의 집에서 태어난 것은 偶然이 아니다. 체격이 크고 훌륭하며¹⁴⁾ 卓越¹⁵⁾하여 위엄 있고 우뚝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모두 자연 복종하였다' 라고 하였다.

선생은 就學할 때부터 독서를 職分으로 삼아, 부지런하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諸子百家를 두루 거치고 經傳을 基本으로 하여 朱子 退溪書를 準的으로 하였으니, 선생의 학문은 廣範圍하고 該博하였으며, 평범하고 진실하면서도 精密하고 深奧하였다.

부모를 섬기는데 뜻과 몸의 봉양을 다하였고, 宗族에게는 敦睦의 義를 잃지 않았으며, 祭祀에는 마치 生時처럼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和睦을 두텁게 하였고, 어떤 일이라도 그 處理를 公正하게 하였다.

또 약한 이를 불쌍히 여기고 없는 이들을 가엾게 여겨, 널리 가난한 백성들을 救濟하였으며, 孝子와 烈女로 소문난 사람이 있으면 지극한 뜻으로 稱讚하고 宣揚하였는데, 身分이 낮고 賤하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로지 忠 信 篤 敬을 일평생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였으니, 이것이 곧 선생의 평소 몇몇한 行動 指針이었다.

오직 나라가 기울어진 때를 만나, 白頭로 隱退하여¹⁶⁾ 田野에 있다가 늦게야 잠시 벼슬 자리에 머물렀을 뿐이니, 이것은 큰 솔이 적합하게 쓰이지 못한 것이며, 黃鐘이 조화롭게 들리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石塢 權翁은 선생이 돌아가시자 선생에 대한 輓詞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14) 魁偉 : 체격이 크고 훌륭함. 魁梧(장대의 뜻). [後漢書] '郭泰性明知人 好獎訓士類 容貌魁偉'

15) 卓犖 : 卓越. [晉書] '卓犖不羈'

16) 林下 : 벼슬을 그만 두고 隱退한 곳. 田野.

有瓠五石大	오석되는 크나큰 박하나가 있는데
枵然濟川材	크기가 ¹⁷⁾ 천하를 구제할 ¹⁸⁾ 재목이로다
奈何成廓落	어찌다가 쓸쓸하고 초라하게 ¹⁹⁾ 되어
埋沒洛江隈	낙동강 물굽이에 파묻혀 있다네

秀山 金秉宗翁은 輓詞에서, 시대를 잘못 만나 세상에 적용되지 못한 선생의 器局과 經綸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汎彼江湖五石瓠	저 강호에 떠 있는 오석의 박이여
漆園人去總拘儒	칠원 사람 ²⁰⁾ 도 拘儒 ²¹⁾ 들을 버렸다네
寧容窄窄今天地	어찌 궁박한 ²²⁾ 지금 세상에 용납되랴
隨意浮遊曠漠都	넓은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 다녔네

그리고, 從弟 相鎬公은 輓詞에서 선생의 家庭 教育을 기렸다.

忠厚仁明賦性姿	忠厚仁明은 타고난 성품과 모습이고
八旬完養菊溪湄	八旬까지 菊溪 가에서 養生하였네
趨過當日聞詩禮	趨庭하던 當일에 詩禮를 들었기에 ²³⁾
不出門庭自有師	門庭을 안 나가도 스승이 있었네

이와 같은 몇몇 君子들의 평가를 보면 선생의 生涯 와 人品이 어떠했었는지 그 대강을 斟酌할 수 있다. 선생의 이러한 思想과 學問은 다음 詩들에서 그 片鱗을 찾아 볼 수 있다.

1) 偶吟²⁴⁾ - 敬과 義와 利

義當不言利	義에 당연하며 利를 말하지 않고
利或以義看	利에는 가끔 의리로써 살핀다네
此處難爲力	이것에는 힘쓰기가 어려운 것이나

17) 枵然 : 枵를 효, 馘빈나무효, 큰 모양.

18) [易經 繫辭] '知周乎萬物而 道濟天下'

19) 廓落 : 적적하고 실망한 모양. 磊落.

20) 漆園人 : 莊子の 別名. 山東省 荷澤縣 북쪽에 있는 蒙의 漆園 지방의 官吏였기 때문에 漆園吏라고도 함. [史記] '莊子者 蒙人也 名周 周嘗爲蒙漆園吏'

21) 拘儒 : 融通성이 없고 實情에 어두운 儒生. 편협함. [後漢書 61, 左雄傳 論] '忘其拘儒 拂巾衽褐'

22) 窄 : 좁을착. 곤궁할착.

23) [論語 季氏 13]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學詩乎...' 孔子의 아들 鯉가 들을 지나다가 孔子에게 詩와 禮를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음. 곧 家庭教育.

24) [大瓠文集] 詩 (141面)

只在敬否間	다만 敬이나 아니냐에 달려 있다네
循天理曰義	天理를 따르는 것을 義라고 하고
從人欲謂利	人欲을 따르는 것을 利라고 한다네
所以孟氏書	孟子書에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不言此其意	이 뜻을 말하심이 어니었던가
胸中無此物	가슴 속에 이 人欲이 없으면
於學方見路	學問의 바른 길이 곧바로 보인다네
世上奇男子	이 세상의 뛰어난 남자들도
必從底裡誤	이를 따르다 반드시 그르친다네

이 詩에는 義理를 追求하고 이익을 排斥해야 한다는 자신의 굳은 信念이 잘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利益을 먼저 생각하여 義理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다.

孟子가 梁惠王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義理를 강조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義理를 추구하면 利益은 저절로 隨伴되는 것이다. 人欲, 곧 사람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天理를 잊게 된다. 천리를 따르는 것이 義인 것이다.

이 義理를 따라 사는 것은 힘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자칫하면 利益에 눈이 어두워, 그곳으로 빠져 들기 쉽다. 그것은 오직 敬 工夫 뿐이다. 마음 속에 敬 思想이 들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2) 偶成- 次古韻²⁵⁾ - 存天理 安貧樂道

萬事人間已天定	인간의 모든 일 하늘이 이미 정했는데
浮生空自忘順後	부생들은 공연히 업보 ²⁶⁾ 를 잊고있네
其樂顏氏非求樂	안자의 즐거움은 구한 것이 아니고
固有舜君本無有	순임금도 가진 것이 본래 없었다네
理可爲時猶可爲	이치가 옳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며
義無取處卽無取	의리상 옳잖으면 취하지를 말아야지
人生榮辱皆報復	인생의 영욕은 다 으보가 있는 법
鬼不言人人莫叩	귀신이 말 않아도 두드리지 말게나

모든 人間 萬事가 다 하늘의 理致에 따른 것인데, 사람들은 부질 없이 慾心을 부린다. 욕심을 부리다가 天理를 어겨 죄를 지으면 業報를 받는 데도 그것을 잊고 산다. 그래서 올바른 人生 길을 그르치는 것이다.

顏子의 즐거움은 억지로 求한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天理를 따랐기에 저절

25) [大瓠文集] 詩 118面

26) 順後報 : 順後業. 現世에서 지은 죄를 三生 뒤에 받는 業報. 三報의 하나.

로 얻어 진 것이다. 舜임금도 마찬가지다. 순임금도 天理대로 산 사람이다. 본래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면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알았던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욕심을 부리고 영화를 찾았다더라면 이러한 즐거움은 멀리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자연의 이치에 順應하여 이치에 맞고 옳으면 반드시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구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榮辱에는 다 應報가 있으므로 神이 경고하지 않더라도 追求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3) 山家早春²⁷⁾ - 民生苦의 救濟

天艸初生景物新	고운풀 돌아나서 경물들이 새롭고
陌頭楊柳又精神	언덕의 버드나무 또한 아름다운데
忽然一念雙眉縮	갑자기 한 생각 찌프리게 하는 것은
豈但春愁惱殺人	사람을 괴롭히는 ²⁸⁾ 봄시름 뿐이리요
大穡頻年苦旱天	큰 농사에 해마다 가뭄이 너무 심해
新春不見井生泉	새봄에도 우물에 물이 나지 않네
山人不識余心憫	산인들은 나의 괴로움 알지 못하고
欲燒青峯爨火田	푸른 산에 화전질 ²⁹⁾ 을 하려하고 있네

봄이 되어 만물이 서생하는 즐거운 계절이 되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春窮에 시달리고 있다. 또 日帝의 收奪로 因해 生活苦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였다. 그래서 선생은 이를 조금이나마 克服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봄이 되어 萬物이 甦生하는 즐거운 계절이 되었지만, 오직 백성들이 春窮期를 당해 괴로와 하는 모습을 보면, 즐거운 계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봄 시름인 것이다. 거기다가 해마다 가뭄이 심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먹을 샘물조차 말랐으니, 더 말할 수 있겠는가.

倭賊의 治下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뭄으로 凶年이 계속되어, 春窮期가 되면 農民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延命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太半이었다. 그래서 선생은 三峴 柳昌公과 活民所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救濟하는데 힘을 다함으로써,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곤궁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詩로써 읊었다.

27) [大瓠文集] 詩 126面

28) 惱殺 : 애가 타도록 몹세 괴롭힘. 특히 여자가 아름다운 용모로써 남자를 매혹하는 일. 殺은 助辭. 李白 '一面紅妝惱殺人'

29) 爨 : 회화질할노. 조롱할노.

晝宵非極多辛苦	밤낮으로 격는 고통 풀일 날이 없는데
所畏毒稅未全輸	세금 독촉 두려워도 완납할 순 없다네
有女及笄未暇問	연만한 처녀들도 시집갈 수 없는 형편
有男無室何曾憂	나이들어 아내 없음 어찌 근심하리오
昔在及期尚有望	지난 날의 기약에는 희망이 있었으나
到此地頭太虛無	지금에 이르르니 너무 허무하구나

어느 시대에나, 백성들이 自然 災害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聖君을 만나지 못하면 세금 때문에 더욱 살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貪官汚吏의 虐政이 일어난다. 이 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處女들과 總角들이 제 때에 婚姻하지 못하고 한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때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4) 山中伏次先集 山居四時各四吟 : 閑居 養拙

春朝

山朝春色倍鮮明	산의 아침 봄빛은 몇배나 선명한데
好鳥林端復騷鳴	고운 새 숲끝에서 처량스레 ³⁰⁾ 우는구나
天地忽新佳氣滿	온천지는 새롭고 좋은 기운 가득하니
病餘四肢覺溫生	병이 들은 사지가 생기 돌아 나누나

春晝

柴門無客日遲遲	사립문에 손이 없어 하루 종일 지루한데
風拂飛花巧點依	바람결에 날리는 꽃 옷자락에 스며드네
我誦河南花柳句	하남정씨 화류 구절 외우는 나는
何如沂水詠而歸	어쩌면 기수에서 읊으면서 돌아가리 ³¹⁾

春暮

山僮勞力採新薇	산골의 아이들은 고사리를 캐어서
歸趁夕飡慮我飢	주린 나를 생각하여 돌아와 저녁 짓네
夕露沾衣非爾惜	저녁 이슬 옷젖음은 아까울 것 없으니
始諳陶令願無違	비로소 도령의 원무위 ³²⁾ 를 알리로다

春夜

花影橫斜月上東	동산에 뜨는 달에 꽃그림자 비취고
花樽斟月興難窮	꽃술잔 달아래서 흥겨움이 그지 없네
月光安得長繩繫	달빛인들 어찌하여 길이길이 이어지라
直到花飛盃酒空	떨어지는 꽃잎처럼 술잔도 비워지네

30) 騷 : 처량스러울소

31) 〔論語〕先進 25. '曰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詠而歸'

32) 願無違 : 사람의 도리를 어기지 않기를 원함.

위 네 편의 詩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마다, 아침 낮 저녁 밤으로 나누어 읊은 '山居四時' 중 봄의 詩篇 들이다. 봄날 어느 하루의 시간마다 달리 나타나는 정취와 생각을 描寫하였다. 삶과 자연 情景이 뛰어나게 아름답고, 이미지가 선명하게 잘 형상화 되어 있으며, 節制된 채 가냘프고 곱게 일어나는 情緒는 잔잔한 호수 속의 잔물결을 聯想하게 한다.

先賢들의 올바른 삶을 본 받고 追慕하는 선비의 전형적인 생활이 진솔하게 담겨 있는 한편, 자신을 돌아 보고 끊임 없이 心性을 수양하는 선생의 모습과 인생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선생의 詩는 20세기 初를 마지막으로, 그 脈絡이 끊기는 전통 선비의 시의 大尾를 보는 듯한 感慨를 준다. 일본과 西歐의 문화가 수용되면서 근대詩가 쓰여 지는 등, 새로운 文學이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선비들의 삶을 漢詩로 昇華시키는 빛나는 成就라 하겠다.

5. 맺는 말

이상으로 先生의 生涯와 思想 및 詩文을 대략 살펴 보았다. 그러나 氷山의 一角이 불과한 고찰이라,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그지 없다. 앞으로 이어져야 할 우리들의 課題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집은 이제 이루어 졌지만 번역하고 연구하여, 선생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그 활용에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責任과 義務이다. 지금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人材 養成이 무엇 보다도 時急한 때이다.

그러한 인재가 만이 나와 이 불실한 내용의 글을 하루 빨리 校訂하고 補充해 주기를 바라면서 拙筆을 그친다.